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47-2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25 가족인식조사] 가정 내 의사결정권 인식

2025. 9. 10.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집안 주요 대소사에 대한 부부 의사결정권 기대와 현실

**주요 집안 대소사,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권 가져야 한다는 인식 우세한 가운데
생활비 지출, 아내 쪽 부모 부양, 자녀 교육에서는
남편보다는 아내가 의사결정권 가져야 한다는 인식 높아**

결혼 후 부부는 다양한 대소사를 경험하게 된다. 자녀 교육, 이사 및 주택 구입 결정, 재산 관리 및 투자, 생활비 지출 관리, 집안 경조사 및 가족모임, 남편 쪽 부모 부양, 아내 쪽 부모 부양 등 일곱 가지 주요 집안 대소사를 제시하고, 아내와 남편 중 누가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지를 물었다.

조사 결과, 일곱 가지 대소사 모두에서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다. 특히 이사 및 주택 구입 결정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0%가, 재산 관리 및 투자에 대해서는 75%가 부부가 동등하게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아내 혹은 남편 주도의 의사결정을 지지하는 응답은 10%대에 그쳤다. 큰 비용이 수반되는 경제적 결정일수록 부부가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뚜렷한 것이다. 기혼 남녀로 응답을 한정해도 과반을 훌쩍 넘는 사람들이 동일한 의견을 보였다(이사 및 주택 구입 결정은 76%, 재산 관리 및 투자는 67%).

자녀 교육과 집안 경조사 및 가족모임에 대해서도 부부 공동 의사결정을 지지하는 응답이 각각 74%, 69%로 높다. 다만 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차이가 있다. 자녀교육에서는 아내가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22%로, 남편이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5%)보다 높다. 집안 경조사 및 가족모임에서도 아내 주도 의견이 20%로 남편 주도 의견(11%)보다 많다. 기혼 남녀의 응답도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부부 공동 의사결정이 주류인 가운데, 남편보다는 아내 쪽 의사결정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다소 많은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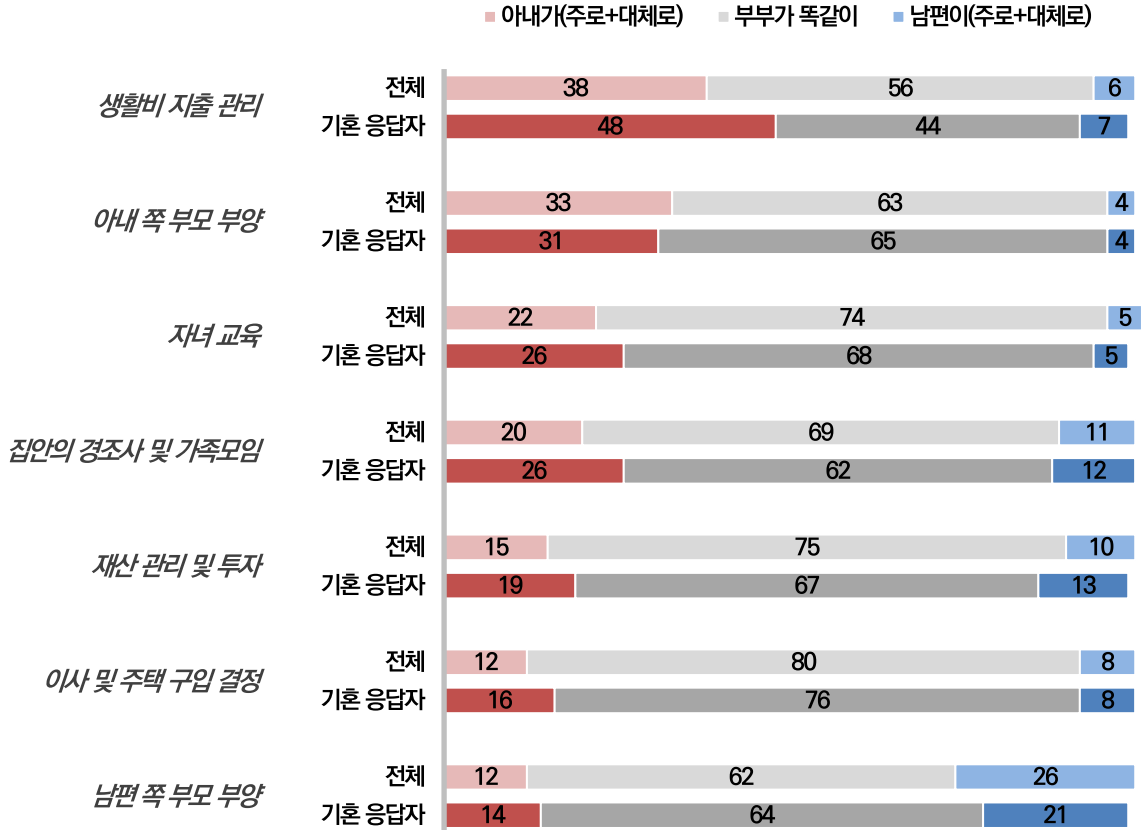
아내 쪽 부모 부양, 남편 쪽 부모 부양 문제에서도 부부 공동 의사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아내 쪽 부모 부양과 남편 쪽 부모 부양에 대해 각각 63%, 62%가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혈연 관계에 따른 차이도 보인다. 아내 쪽 부모 부양에서는 아내가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33%로, 남편이 가져야 한다는 의견(4%)을 크게 앞선다. 남편 쪽 부모 부양에서도 남편 주도 의견이 26%로 아내 주도 의견 12%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기혼 남녀 응답에서도 큰 차이는 없다. 부모 부양 또한 부부가 의견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지만, 혈연 관계인 사람이 좀 더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음을 보여준다.

생활비 지출 관리는 다른 영역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부부 공동 의사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이 56%로 과반이지만, 아내가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38%로 상당하다. 기혼 남녀로 한정하면, 아내 주도 의견이 48%로 절반에 달하는 반면 남편 주도 의견은 소수(7%)에 그친다. 가계 관리를 여전히 아내의 역할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대부분의 집안 대소사에서 부부가 동등하게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2022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 결정사항일수록 부부 공동 의사결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하지만 부모 부양에서는 혈연 관계를, 생활비 관리에서는 아내의 의사결정을 좀 더 중요하게 보는 등 전통적인 가족 내 업무분담의 모습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주요 집안 대소사,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권 가져야 한다는 인식 우세한 가운데
생활비 지출, 아내 쪽 부모 부양, 자녀 교육에서는 남편보다는 아내가 의사결정권 가져야 한다는 인식 높아

(단위 : %)



질문 : 다음의 각 상황에서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 전체 1,000명, 기혼 응답자 56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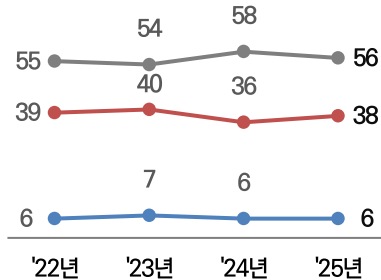
조사기간 : 2025. 5. 9 ~ 1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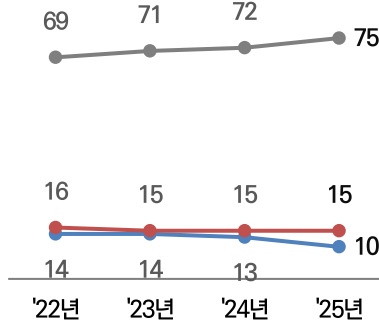
주요 집안 대소사에 대한 의사결정권 소유 인식 비교(2022년 이후, 전체 응답 기준)

— 아내가 의사결정권 가져야 한다(%)
 —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권 가져야 한다(%)
 — 남편이 의사결정권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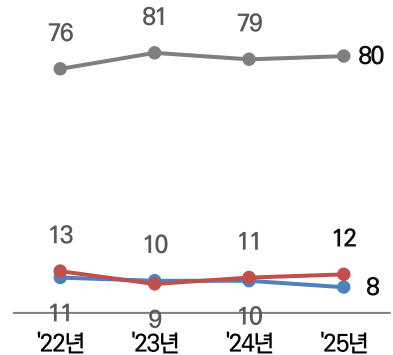
생활비 지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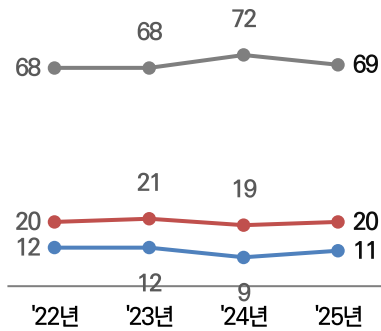
재산 관리 및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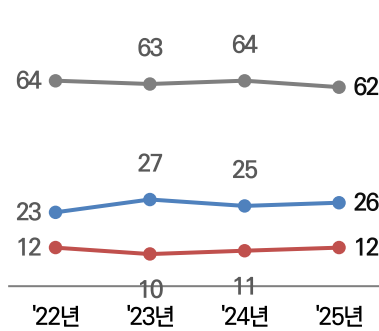
이사 및 주택 구입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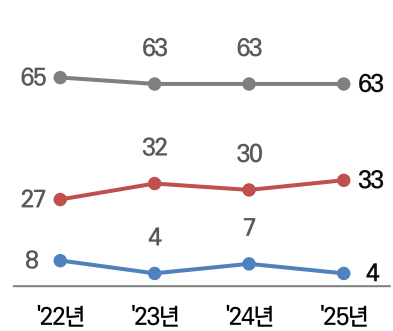
집안의 경조사 및 가족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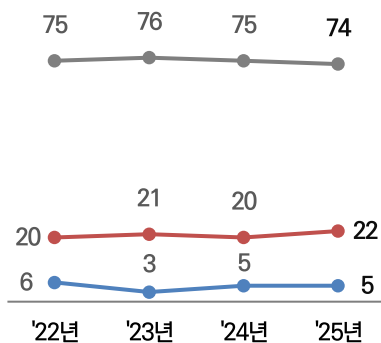
남편 쪽 부모 부양



아내 쪽 부모 부양



자녀 교육



질문: 다음의 각 상황에서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2. 6. 17 ~ 20 // 2023. 6. 23 ~ 26 // 2024. 4. 18 ~ 22 // 2025. 5. 9 ~ 12

기혼 가정의 실제 의사결정권, 부부가 똑같이 갖고 있다는 응답은 감소 생활비 지출, 자녀 교육은 아내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

그렇다면 인식과는 별개로, 실제 의사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기혼 남녀에게 앞서 제시한 일곱 가지 주요 집안 대소사의 실제 의사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물었다.

재산 관리 및 투자, 이사 및 주택 구입 결정 등 집안 경제 관련 사안과 집안 경조사 및 가족모임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실제로도 이들 대소사에서는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다수이지만, 인식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재산 관리 및 투자에서 부부가 동등하게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47%로 줄어들었다(75%→47%). 이사 및 주택 구입 결정에 대해서도 부부 공동 의사결정이 56%로 인식 대비 차이를 보인다(80%→56%). 집안 경조사 및 가족 모임에서도 부부 공동 의사결정 응답이 51%로 줄어들었다(69%→51%).

부부가 동등하게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이 줄어든 만큼, 아내 혹은 남편이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늘었다. 이사 및 주택 구입 결정에서 아내가 의사결정권을 갖는다는 응답은 27%, 남편이 갖는다는 응답은 18%로, 남편보다는 아내에게 조금 더 주도권이 있는 모습이다. 집안 경조사 및 가족 모임에서도 아내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35%로, 남편이 갖고 있다는 응답(15%)보다 20%포인트 높다. 반면 재산 관리 및 투자에서는 아내 주도 응답이 28%, 남편 주도 응답이 25%로 비슷하다.

남편 쪽 부모 부양과 아내 쪽 부모 부양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 의사결정을 지지하면서도, 혈연관계인 사람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조금 더 높다. 이러한 경향은 실제 의사결정권에서도 확인된다. 남편 쪽 부모 부양에서는 남편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33%로, 아내가 갖고 있다는 응답(17%)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아내 쪽 부모 부양에서는 반대로 아내가 의사결정권을 갖는다는 응답이 43%로, 남편이 갖는다는 응답 6%보다 크게 높다. 다만 어느 쪽이든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다수이다.

생활비 지출 관리와 자녀교육 역시 부부 공동 의사결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내가 의사결정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 54%는 자녀 교육의 의사결정권이 아내에게 있다고 답해, 부부 공동(42%)이나 남편 주도 (5%)보다 높다. 생활비 지출 관리 또한 아내에게 의사결정권이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고(54%), 남편이 의사결정권을 갖는다는 응답은 12%에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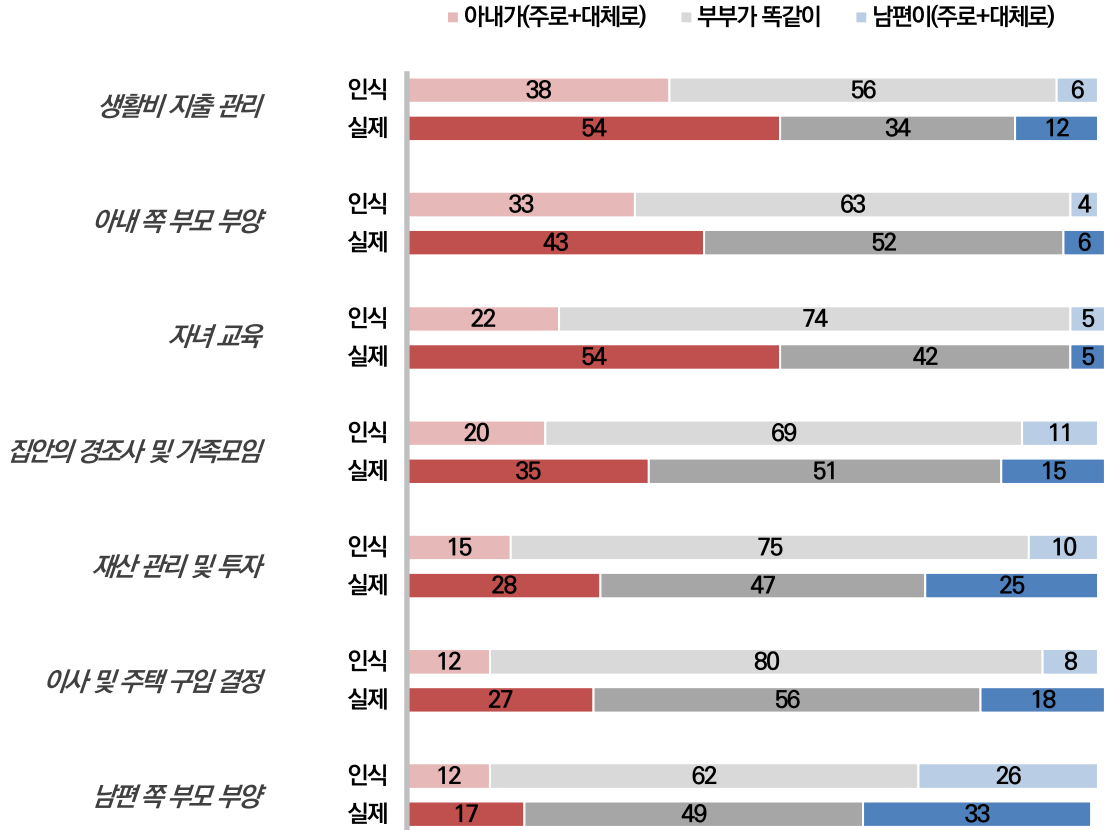
재산 관리 및 투자, 이사 및 주택 구입 결정과 같은 경제 관련 사안에서 이제는 아내가 의사결정권을 갖는다는 응답이 남편이 갖는다는 응답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집안 경조사 및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아내가 의사결정권을 갖는다는 응답이 더 높다. 과거 가부장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부부 간 균형잡힌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가정 내 대소사 의사결정권에 대한 인식과 현실의 괴리는 여전하다. 이상적으로는 대부분의 주요 대소사에서 부부가 동등하게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혼 남녀의 답변을 살펴보면 모든 대소사에서 실제로 부부가 동등하게 의사결정권을 갖는다는 응답은 줄어들고, 여성 혹은 남성 중 한쪽이 의사결정권을 갖는다는 응답이 증가했다. 생활비 지출이나 자녀 교육 등 전통적으로 아내의 역할로 여겨지던 일은 여전히 여성이 더 많은 주도권을 갖고 있다.

한국 사회의 가족 내 의사결정 구조가 평등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통적 성 역할 분담의 영향력도 여전하다. 부부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실제 가정에서는 영역별로 차별화된 의사결정 패턴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인식 변화가 현실로 완전히 이어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혼 가정의 실제 의사결정권, 부부가 똑같이 갖고 있다는 응답은 감소
생활비 지출, 자녀 교육은 아내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

(단위 : %)



질문 : (인식) 다음의 각 상황에서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귀 댁은 다음의 각 상황에서 남편과 아내 중 실제로 누가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습니까?

응답자 수 : (인식) 전체 1,000명

(실제) 자녀 교육 - 배우자 있고, 미성년 자녀 있는 응답자 168명 / 남편 쪽 부모 부양 - 배우자 있고, 남편 쪽 부모님 있는 응답자 300명 / 아내 쪽 부모 부양 - 배우자 있고, 아내 쪽 부모님 있는 응답자 324명 / 그 외 - 배우자 있는 응답자 56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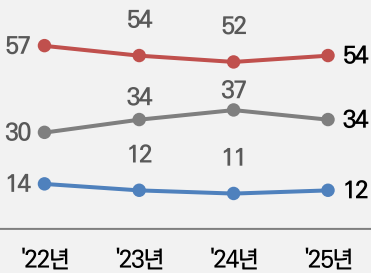
조사기간 : 2025. 5. 9 ~ 1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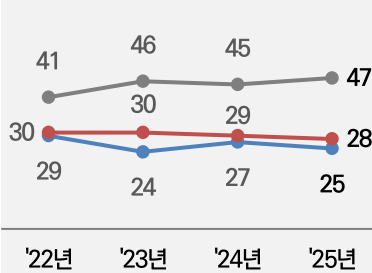
주요 집안 대소사에 대한 실제 의사결정권 소유 비교(2022년 이후, 실제 행태 기준)

- 아내가 의사결정권 갖고 있다(%)
 —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권 갖고 있다(%)
 — 남편이 의사결정권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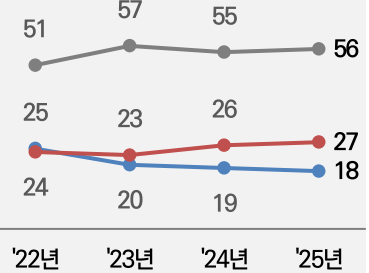
생활비 지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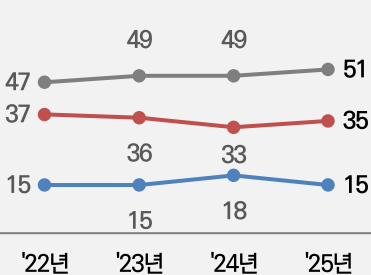
재산 관리 및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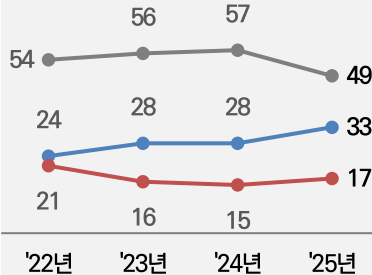
이사 및 주택 구입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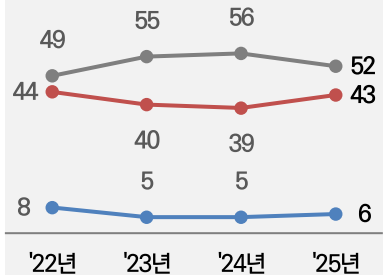
집안의 경조사 및 가족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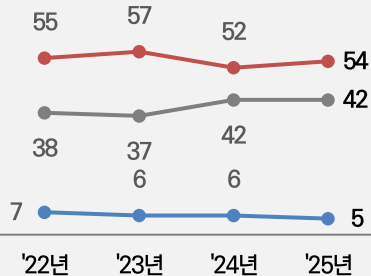
남편 쪽 부모 부양



아내 쪽 부모 부양



자녀 교육



질문: 귀 댁은 다음의 각 상황에서 남편과 아내 중 실제로 누가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습니까?

비고: 기혼남녀 및 각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질문

조사기간: 2022. 6. 17 ~ 20 // 2023. 6. 23 ~ 26 // 2024. 4. 18 ~ 22 // 2025. 5. 9 ~ 12

2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과 현실

**전체 응답자의 61%, 기혼 응답자의 50%는 가사를 부부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인식
여성이 가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도 전체 36%, 기혼남녀 47%로 낮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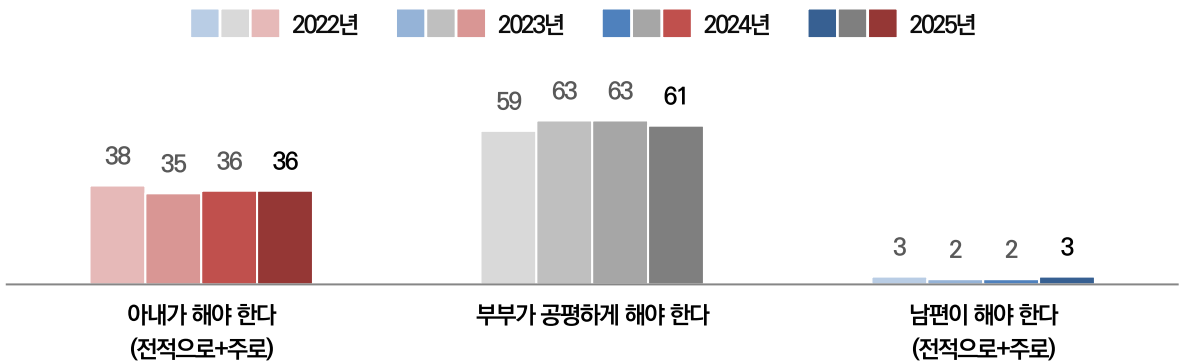
주요 대소사 외에,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도 확인해 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61%는 가사 분담 또한 부부가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2022년 이후 꾸준히 10명 중 6명 정도가 아내와 남편이 동등하게 가사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반면 3명 중 1명(36%)은 아내가 가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한다.

기혼남녀로만 한정하면, 그 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기혼 남녀 중,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는 사람은 50%로 1년 전보다 6%포인트 줄었다. 반면 아내가 담당해야 한다는 데에는 47%가 동의해, 1년 전보다 4%포인트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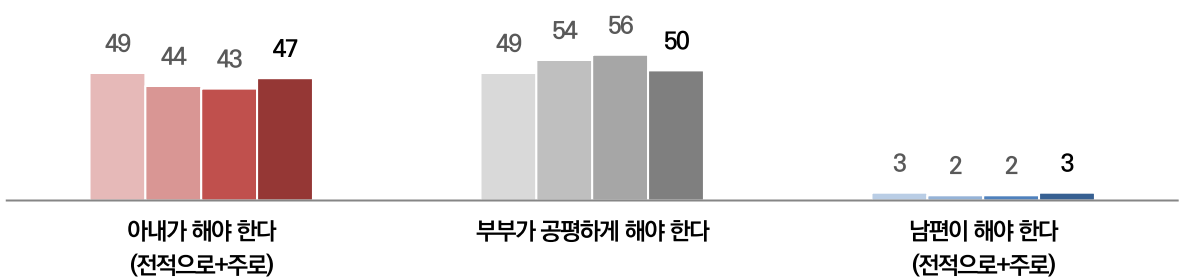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의 61%, 기혼 응답자의 50%는 가사를 부부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인식
여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도 전체 36%, 기혼남녀 47%로 낮지 않아**

기혼 가정의 가사 분담 인식-전체

(단위 : %)



기혼 가정의 가사 분담 인식-기혼 남녀



질문 : 기혼 가정의 가사 분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 전체 - 각 조사별 1,000명(기혼남녀 2022년 582명, 2023년 588명, 2024년 585명, 2025년 56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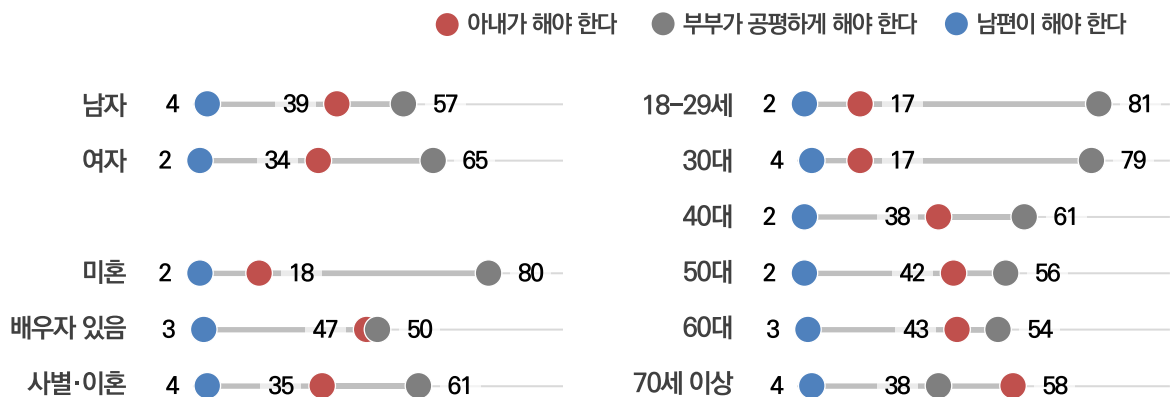
조사기간 : 2022. 6. 17 ~ 20 // 2023. 6. 23 ~ 26 // 2024. 4. 18 ~ 22 // 2025. 5. 9 ~ 12

30대 이하, 미혼에서는 10명 중 8명이 '가사 분담 부부가 공평하게' 연령대 높을수록 아내가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 높아져... 70세 이상 58%는 '아내가 해야'

기혼 남녀 중 부부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50%, 아내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은 47%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미혼 남녀는 부부의 공평한 가사분담에 동의하는 사람(80%)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혼인여부 뿐만 아니라, 세대별 인식 차이도 크다. 18~29세, 30대에서는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각각 81%, 79%에 이르며, 아내가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각각 17%에 머문다. 40대부터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아내가 가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도 높아지는데, 70세 이상에서는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38%)보다는 아내가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58%)이 더 우세하다.

30대 이하, 미혼에서는 10명 중 8명이 '가사 분담 부부가 공평하게' 연령대 높아질수록 아내가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 높아져... 70세 이상은 58%가 '아내가 해야'

(단위 : %)



질문 : 기혼 가정의 가사 분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5. 5. 9 ~ 1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기혼 가정의 실제 가사분담, '아내가 담당한다' 72%,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한다' 23% 인식과 현실의 차이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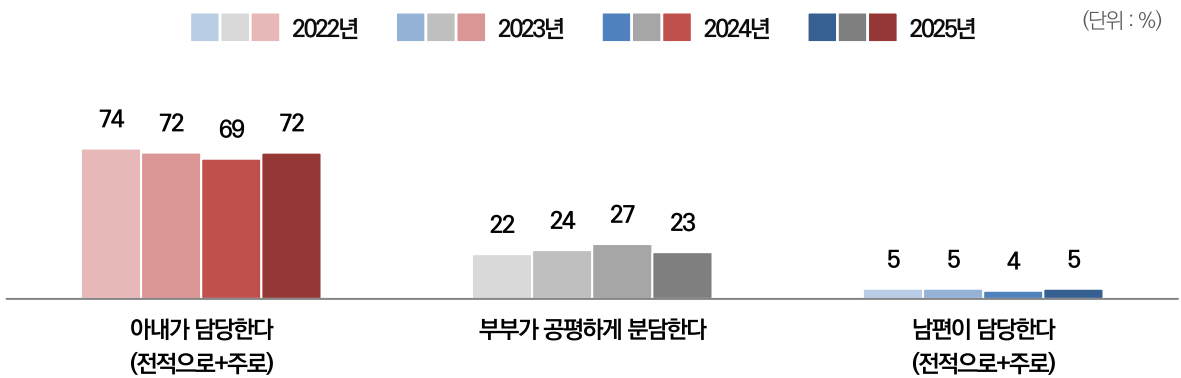
실제 가사분담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기혼 남녀에게 실제 가사 분담 현황을 물어본 결과,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친다. 반면 아내가 가사를 담당한다는 응답은 72%로 다수를 차지한다. 본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22년 이후 아내가 실제로 가사를 담당한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70%대를 유지하고 있어, 부부가 함께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과 현실 사이에 큰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세대 간 차이가 뚜렷하다. 18~39세 젊은 부부에서는 부부 공평 분담(48%)과 아내 담당(46%) 응답이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40대부터는 아내가 담당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기 시작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다. 60대에서는 78%, 70세 이상에서는 84%가 가사를 아내가 담당한다고 답했다.

맞벌이 가정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아내가 가사를 분담한다는 응답이 64%에 이르고, 외벌이 가정에서는 78%가 같은 응답을 했다. 특히 누가 생계를 책임지는지와 관계없이 가사는 여전히 아내의 몫으로 여겨지고 있어, 남성 외벌이 가구에서는 79%, 여성 외벌이 가구에서도 71%가 아내가 가사를 담당한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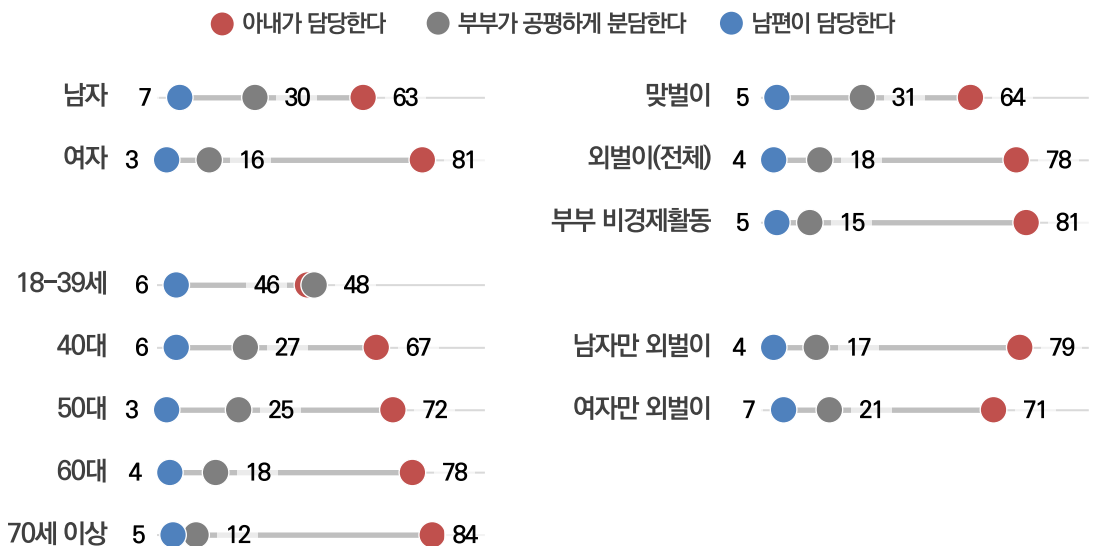
지난해에 이어,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도 여전하다. 기혼 남성의 63%는 아내가 가사를 담당한다고 응답한 반면, 기혼 여성은 81%가 같은 답변을 했다. 부부 공평 분담에 대해서도 남성은 30%, 여성은 16%만이 실현하고 있다고 답해 14%포인트의 차이를 보인다. 가사노동 참여도와 기여도에 대한 부부 간 시각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 결과이다.

기혼 가정의 실제 가사분담, '아내가 담당한다' 72%,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한다' 23% 인식과 현실의 차이 커



연령대 높을수록 '실제로는 아내가 가사노동 담당' 높아 현재 맞벌이 가구인 응답자도 64%가 '아내가 가사노동 담당하고 있어'

(단위 : %)



질문 : 실제 귀댁에서는 가사를 어떻게 분담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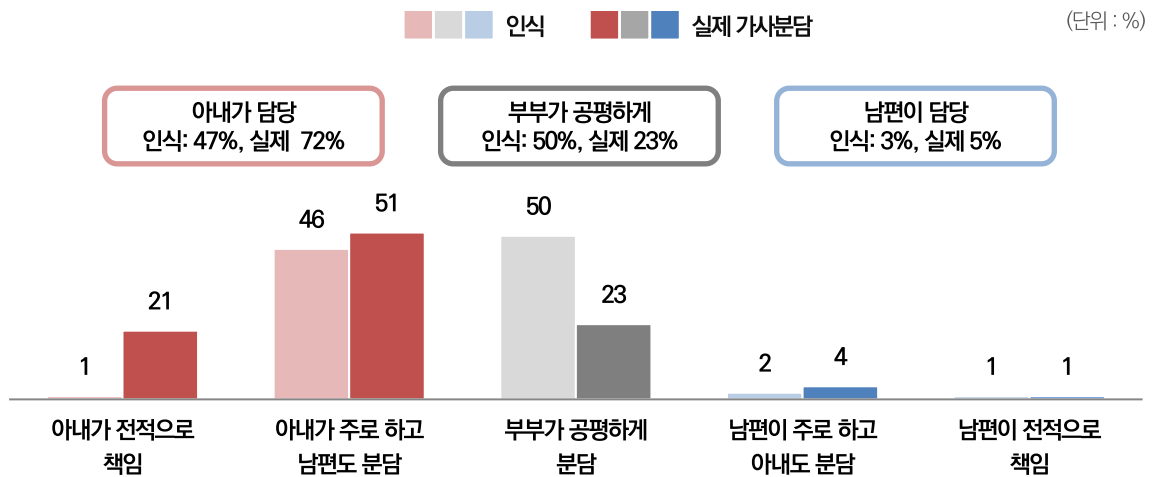
응답자 수 : 기혼남녀 2022년 582명, 2023년 588명, 2024년 585명, 2025년 561명

조사기간 : 2022. 6. 17 ~ 20 // 2023. 6. 23 ~ 26 // 2024. 4. 18 ~ 22 // 2025. 5. 9 ~ 12

우리 사회 가사분담 현실과 이상, 괴리감 커

우리 사회의 가사분담 현실은 이상과 뚜렷한 괴리를 보인다. 전체 응답자의 61%가, 기혼 남녀 중에서도 50%가 부부의 공평한 가사 분담을 지지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23%만이 공평 분담을 실현하고 있으며, 72%의 가정에서 여전히 아내가 가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평등한 가사분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데는 여전히 상당한 장벽이 존재한다. 앞서 다양한 집안 대소사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부부 간 균형잡힌 관계로 변하고 있는 모습이 일부 확인되기도 했으나, 가사분담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성 역할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기혼 남녀의 가사분담 인식, 부부가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50%)과 실제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현실(23%)과의 괴리감 커



질문 : 인식 - 기혼 가정의 가사 분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실제 - 실제 귀댁에서는 가사를 어떻게 분담하고 있습니까?

응답자 수 : 현재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561명

조사기간 : 2025. 5. 9 ~ 1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성별이나 세대, 맞벌이 여부 등과 관계없이 기혼 남녀의 가사 분담 인식과 현실의 격차 커

(단위 : %, %p)

사례수 (명)	아내가 (전적으로 + 주로)			부부가 공평하게			남편이 (전적으로 + 주로)		
	인식	실제	차이 (실제-인식)	인식	실제	차이 (실제-인식)	인식	실제	차이 (실제-인식)
전체 (561)	47	72	+25	50	23	-27	3	5	2
성별									
남자 (267)	47	63	+16	48	30	-18	4	7	3
여자 (294)	47	81	+34	52	16	-36	2	3	1
연령									
18-39세 (53)	23	46	+23	72	48	-24	6	6	0
40대 (110)	48	67	+19	51	27	-24	1	6	5
50대 (143)	45	72	+27	54	25	-29	1	3	2
60대 (144)	46	78	+32	51	18	-33	3	4	1
70세 이상 (112)	62	84	+22	33	12	-21	5	5	0
맞벌이 여부									
맞벌이 (238)	37	64	+27	59	31	-28	4	5	1
외벌이(전체) (226)	53	78	+25	45	18	-27	2	4	2
남자만 외벌이 (185)	53	79	+26	45	17	-28	2	4	2
여자만 외벌이 (41)	49	71	+22	46	21	-25	5	7	2
부부 비경제활동 (97)	58	81	+23	39	15	-24	2	5	3

질문 : 인식 - 기혼 가정의 가사 분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실제 - 실제 귀댁에서는 가사를 어떻게 분담하고 있습니까?

응답자 수 : 현재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561명

조사기간 : 2025. 5. 9 ~ 1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5년 4월 기준 전국 97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35,159명, 조사참여 1,614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2.8%, 참여대비 62.0%)
조사일시	• 2025년 5월 9일 ~ 5월 12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